

사라지는 지방 백화점... “어려운 경제 속 매출부진 원인”

지난 6월 롯데백화점 마산점 영업 종료
부산 센텀시티점도 매각 절차 돌입
경기 이천, 서울 구로구 등도 폐점
인구 감소로 수요 ↓ 온라인쇼핑 ↑

과거 유통업계 소비의 황금 탑으로 불리던 백화점들이 점차 입지를 잃고 있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국내 유통업 전반에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주요 백화점의 매각과 폐점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유통업계에 불어닥친 불경기 상황에 따라, 백화점들이 하나둘 비매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백화점은 개점 후 대부분 약 10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점에 들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30일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영업을 종료했다. 롯데쇼핑이 대우백화점을 인수해 재



롯데백화점 마산점 전경 사진

/롯데

단장한 지 약 10년 만에 폐점된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도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07년에 문을 연 이 점포는 만약 매각이 확정되면 약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비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백화점 폐점은 진행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이천에 있는 NC백화점 이천점이 지난해 8월 말 폐점을 단행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역시 오는 2025년 6월 폐점을 예고했다. 두 백화점 모두 개점한 지 10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 폐점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한편, 오랜 시간 지역 상권을 지킨 백화점도 폐점 수순을 밟는다. 경기도 고

양시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일산점은 내년 2월 영업을 중단한다. 1996년 개점해 약 28년간 상권을 지킨 백화점이 영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

폐점의 주요 요인은 매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나오는 점포를 폐점할 이유는 없다”며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업 효율화를 위해 매출 부진 점포가 구조 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 백화점의 매출은 상위 몇 개 점포에 집중돼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신세계백화점의 상위 3개 점포 매출 합계는 전체 매출의 55.4%를 차지했으며,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의 상위 3개 점포 매출 비중도 각각 45.1%와 43.5%에 달했다.

특히 이들 최상위 점포는 수도권 핵심 지역인 강남, 잠실, 판교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백화점 매출 구조가 수도권 내 고소득 소비층이 밀집된 지역을 중

심으로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방 백화점 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내외 유통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지방을 중심으로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점포를 지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 백화점이 폐점할 경우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로 수요가 없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는 등의 이유가 작용된 것 아니겠나”라며 “또, 지방 위주 백화점을 폐점해 그 부지에 다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일 건데 지 금도 미분양 물건이 많은 상황에서 그것도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비트코인, 장중 10만6000달러 돌파... 금리인하·산타렐리 영향

(사상 최고가)

美 트럼프 ‘친 가상화폐’ 정책에 이어
연준, FOMC서 금리인하 가능성 ↑
크리스마스 전후로 가격 상승 기대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장중 한 때 10만6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가상화폐 친화적인 ‘트럼프 2기’의 기대감에 더해 미 연준이 오는 17일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 전망이 확실시되면서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는 ‘산타 렐리’에 대한 기대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16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12시 30분 기준 10만4827.1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일 대비 3.01% 상승한 수준으로, 지난 5일 사상 최초로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16일 서울 서초구 빙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한때 10만6000달러(약 1억5200만 원)까지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스

10만 달러를 넘긴 데 이어 11일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장중 최고가는 10만6449.88달러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11일 구글이 공개한 신형 ‘양자컴퓨터’가 가상화폐의 암호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소식이 가격이 하루 만에 4% 가까이 급락했지만, 양자컴퓨터 상용화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것은 ‘친(親) 가상화폐’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당선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우위가 결정된 지난 11월 이후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1월 초와 비교해 50% 가까이 올랐다.

내년 1월 20일 2번째 임기 취임을 앞둔 트럼프는 ‘친 가상화폐’를 주요한 경제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중국 등 경제 적 대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가상화폐를 전자자산 차원에서 선제 비축하고, 미국 내 가상화폐 산업 육성에도 힘쓰는 내용이다.

특히 트럼프가 지난달 재무장관으로 지목한 스톡 베넷 재무장관, 상무장관으로 지목한 하워드 러트릭, 이달 5일 차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목한 폴 앳킨스 등은 모두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인물로 꼽힌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트럼프 2기’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오는 17~18일(현지시간) 개최하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

할 것이라는 확신도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렸다.

시카고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17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97.1%로 전망했다. 이달 초 예측치인 61.6%에서 35.5%포인트(p) 높아진 수준이다.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산타 렐리’에 대한 기대감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10년 가운데 크리스마스 직 전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7번이다.

시장에서 18일 금리인하를 확인하는 만큼, 비트코인의 가격 향방은 18일 FOMC 이후 발표될 점도표가 결정할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지난달까지 자동차 누적수출액 648억달러

(역대 최고)

산업부, 동기 최고기록비 3억달러 많아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연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기대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648억달러를 기록했다. 동기 최고 기록은 작년 1월~11월 645억달러로 3억 달러 많다.

다만, 지난달엔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출액과 내수 판매, 생산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11월 자동차 수출액은 56억4000만달러(22.9만대)로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중형 3사(한국지엠 +9.1%, KGM +219.3%, 르노코리아 +197.5%)에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실적을 뒷받침했다.

다만, 미국 공장 가동, 월말 수도권 폭설로 인한 인천-평택항 선적량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13.6% 감소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 약진이 두드러졌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0억3000만달러(3.8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55.6% 증가했으며, 4개월 연속 1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내수 판매의 경우 사상 최초로 5만대를 돌파(전년동월 대비 +21.6%)했다.

11월까지 수출 상위 모델은 트렉스, 아반떼, 코나, 트레일블레이저, 투싼, 펠리세이드, 스포티지 등 순이다.

11월 전체 내수 판매는 14만8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7.9% 감소했으나,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연말 판촉강화로 올해 월 기준 최고 판매를 기록했다. 승용차 모델별 내수 판매 상위 모델은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쏘렌토, 쏘나타, 카니발, 쏘나타, 그랑콜레오스 등 순이다.

11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34만4000대로 7.1% 줄었다. 전년 대비 평일이 하루 감소했고, 변속기 등 일부 부품 공급 차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이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을 수 있도록 업계 소통강화, 수출에 호소 등 흔들림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지방의회 국외출장 중 부적절 행태 확인

권익위, 항공권 조작 등 위반사례 조치

#. A의회는 비즈니스 항공권을 발권한 뒤 이를 이코노미 등급으로 위조해 예산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다시 발권받아 출장을 다녀왔다.

#. B의회는 항공권 요금을 위조하여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당 사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을 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 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가 최근 3년간 915건의 국외출장을 통해 약 355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으며, 동행 출장까지 포함하면 약 400억 원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상당수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광 목적의 일정을 포함하며, 부족한 비용을 여행사 강연비나 섭외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에서 부풀려 지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가 확인됐다. 특히, 항공권 위·변조 사례는 405건(44.2%)에 달했다.

방문 지역 분석 결과, 출장 일정 상당수가 관광 중심으로 이뤄졌다. 싱가포르를 출장 94건 중 74회는 가든스바이더베이, 73회는 URA시티갤러리 방문이 포함되는 등 관광지 방문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허위 비용 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환수, 과태료 등 필요한 조치를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해 관리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